

이순신·진린 ‘불멸의 우정’ 선양사업 탄력

완도군, 진린 장군 역사적 재평가... 충무사 인근에 관왕묘 복원
문대통령·시진핑 주석 큰 관심... 학술·관광교류 매개역할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언급했던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陳璘) 장군의 선양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장군의 자취를 한 자리에 모아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 양 국가 원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학술·관광 교류 등 양국 교류에 큰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현재 군이 추진중인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광주일보 2017년 12월20일 1면 보도)과 함께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2일 완도군청에서 완도묘당도 관왕묘 및 진린 장군 재평가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용역은 완도군이 진행하고 있는 ‘완도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재건될 ‘묘당도 관왕묘’의 역사 문화적 가치 등을 연구하고,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과 고금도에서 연합전선을 펼쳤던 명나라 진린 장군을 역사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평가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한국의 완도군에서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파한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 장군을 함께 기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지금 진린 장군 후손들 2000여명이 살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주목 받았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지난 2014년 7월 서울대 강연에서 명나라 장수 진린 장군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사드 문제로 한때 냉각됐던 양국의 정상이 420여년 전 두 장수의 용기와 우정을 공조의 매개로 삼은 것으로 풀이돼 이번 학술용역에도 관심이 쏠렸다.

학술용역을 맡은 장경희 교수팀은 이번 용역의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로 ‘왜곡된 명나라 장수 진린에 대한 재평가’를 꼽았다. 각종 소설과 매체에 표현된 진린의 이미지를 조선시대 각종 기록들을 통해 연구한 결과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용역팀의 설명이다.

연구 결과 진린은 그동안 알려졌것과는 달리 탐욕스럽거나 포악하지 않았고 전혀 비겁하지도 않았으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이순신과 진린은 조선과 명나라를 대표하는 수군 명장으로서 백전백승하였으며, 청렴결백해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했던 공통점이 있는 장수라는 것이 용역팀의 설명이다.

용역팀은 완도 묘당도 관왕묘 건립과 관련하여 1598년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장수 진린이 조명연합수군의 전승을 기원하며 군신인 관왕과 해신인 마조, 삼관대제를 배향하기 위해 건립했다고 밝혔다.

완도 묘당도 관왕묘는 현재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충무사로 변전돼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14호로 관리되고 있다.

완도군은 이번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정

전과 동서무, 동서재, 내중외삼문과 내부 복장물을 포함한 관왕묘를 역사적 고증을 통해 충무사 인근에 복원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동아시아 최고의 수군 명장인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 깨닫는 자리가 됐다”며 “두 장군의 선양사업을 통해 한중관계 개선에 일조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다음 달 10일 완도에서 ‘이순신과 진린 420년 만의 재회’를 주제로 개최되는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에 중국 진린 장군 후손과 광동성 진린문화연구회원 등 30여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문화전당 ‘테크니컬 쇼’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화려한 조명과 무대장치, 디제잉이 한데 어우러진 ‘테크니컬쇼-극장이 또 움직여요’가 펼쳐졌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예술극장의 최첨단 스테이지 퍼포먼스인 테크니컬 쇼를 즐기며 무더위를 잊었다. /최현배 기자 choi@

내일 입추 ... 폭염·열대야 광복절까지 계속

광주 38.5도 무더위 25일째

폭폭씨는 가마솥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5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낮 최고기온이 38.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25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6일과 7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보됐지만, 이번 무더위와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

이다. <관련기사 2·7면>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더위는 7일 입추(立秋)를 지나 오는 15일 광복절 무렵까지 36도 안팎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폭염이 25일째 이어지면서 오후 6시 1분~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에도 광주와 순천·여수·목포·

광양·완도·무안·함평 등 전남 14개 시·군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다.

광주의 경우 올해 20일간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16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에선 올해 평균 12.6일의 열대야가 관측됐으며, 특히 여수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의원이 두손을 번쩍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당 새 대표에 정동영

“생사 기로에 선 당 살리겠다”

민주평화당의 새 당대표로 정동영(4선) 의원이 선출됐다. 또 유성엽·최경환 의원과 민영삼 전 최고위원, 허영 인천시장위원장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평화당은 5일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정기 전국당원 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열어 4선의 정동영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정 신임 대표는 당원 투표(90%)와 국민 여론조사(10%)를 합산해 총 68.57%의 지지를 얻었다.

“경험 많은 선장”을 자처한 정 대표는 1996년 15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17대 대선 대통령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을 지냈

다. 정 의원이 당 대표를 맡게된 것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이후 12년 만이다.

정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유성엽 의원은 41.43%, 최경환 의원은 29.97%를 각각 득표하며 2·3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4·5위를 기록한 민전 최고위원, 허 위원장도 5위까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도부에 합류했다. 청년위원장에는 서진희 후보가 57.5%의 득표율을 기록, 김병운 후보를 제치고 선출됐다. 여성위원장은 양미강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생사 기로에 서 있는 평화당을 살리고, 힘 없고 돈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약자 편에 서라고 정동영에게 기회 주셨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

기무사, 완전 해체 후 새 사령부 창설한다

창설준비단장 남영신 사령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 재편후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는 27년만에 부대 명칭, 조직, 인력구성, 기능과 임무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현재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아래 혁신(1안), 국방부 일부 제제로 소속 변경(2안) 등의 권고안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민간 사찰행위가 드러나면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재설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기무사는 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정보사령부가 모태다. 그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러나 이번에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이 드러나면서 기무사 간판도 내리고 완전히 거듭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군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도 앞으로 사령부의 조직 설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고밀량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며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순수 녹차 정제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 g [560 mg X 90정]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il.com